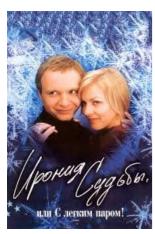
)



1970년대에 개봉한 운명의 아이러니(Ирония судьбы, или С лёгким паром!)

우리나라에서 맨날 크리스마스만 되면 케빈의 나홀로집에를 틀어주듯이 러시아에서도 크리스마스, 새해가 되면 이 영화를 틀어주는 풍습이 있음

영화 내용은 사실 별 거 없는 로맨스 영화이긴 한데, 당시 엄청나게 지어지던 소련의 흐루쇼프 아파트가 중요한 매개체가 됨.

모스크바에 사는 남자 주인공이 술쳐먹고 비행기 타고 레닌그라드로 가게 되는데,

만취해서는 택시에 모스크바지 집주소 쳐불렀는데 우연히 레닌그라드에도 그 주소지가 존재해서 택시기사가 거기에 내려주게 됨.

근데 흐루쇼프식 아파트 아니랄까봐 아파트 단지 구조나 심지어 집 열쇠까지 똑같아서 거기 사는 여자랑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음.

유튜브에 올라와 있긴 한데 영어자막이나 러시아자막이나 싱크가 안맞아서 리스닝 안되면 이해는 힘들듯.. 그래도 재미있음